

일본 디스플레이업체, 특허 협력 강화

지난 2월 5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일본 1, 2위 PDP업체인 마쓰시타전기와 히타치제작소가 PDP분야 특허를 상호 이용하는 기술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또 후지쯔는 액정패널 생산 자회사인 후지쯔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FDTC)를 샤프에 매각, LCD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일본 디스플레이업체들의 이같은 재편 바람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LG 등 한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오는 4월 중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할 합작사를 설립하는 한편 상호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쓰시타 등은 전자부품 공동 개발과 원자재 공동조달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작년 세계 PDP시장 점유율은 삼성SDI가 25.3%로 1위, LG전자가 22.1%로 2위, 마쓰시타가 19.6%로 3위를 보였다.

후지쯔가 샤프에 넘기기로 한 후지쯔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FDTC)는 후지쯔가 80%, 그리고 대만 AUO가 20% 출자해 만든 회사로서 이보다 며칠전 후지쯔는 PDP사업도 히타치에 넘기고 철수기로 한 바 있다. LCD, PDP 사업에서 모두 손을 떼는 후지쯔는 대신 정보 및 서비스사업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는 후지쯔의 액정패널 자회사 주식을 매입해 후지쯔가 갖고 있던 관련 특허를 취득, 재활용함으로써 개발 효율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추진, 가격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지재권 침해건수 절반, 한국제품

일본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수입통관보류를 결정 한 적발건 중 한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9월 중 지재권 침해품 통관보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재권 침해 적발건수 6천7백41건 가운데 한국이 52%에 달하는 3천5백8건을 차지했다고 지난 2월 16일에 밝혔다.

지난 2003년에는 적발건수 중 60.8%가 한국산이었다. 중국은 2천3백57건의 적발건수로 34.4%를 차지, 한국의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건의 대부분인 97.7%가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이었지만 과거에 적발사례가 없었던 특허권 침해건이 47건 적발돼 일본 정부가 향후 지재권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KOTRA는 풀이했다.

특허권 침해는 침해건수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지만 통관 보류된 물품 개수는 무려 8만5천1백21점으로 10.9%에 달했다.

제이미 여사는 듀폰이 내놓은 새로운 섬유로 다리미의 덮개를 만들어 씌울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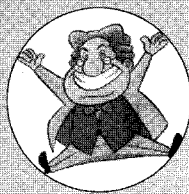
그녀는 곧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생각보다 훨씬 더 편리했다. 다리미에 덮개를 만들어 옷처럼 씌웠으므로 따로 천을 덮을 필요가 없었다. 천이 구겨져 다릴질이 엉망이 되는 일도 없었고 천이 타버리는 일은 더군다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디자인을 특허 출원하였다. 그리고 손수 그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 폭발적인 인기였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소문을 들은 한 의류업체가 제이미 여사에게 권리를 넘겨달라고 했다.

제이미 여사는 의류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 의류업체는 '아이언 코드'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제이미 여사가 상당한 로열티를 받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왕연중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발명교실' 등 발명도서 92권 집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과기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산업포장 등 수상.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④

특허출원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구비서류요? 그날 발명물만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비서류요? 그렇지 않아요! 「자등대밀이 수권!」 순간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움직여 때를 밀어주죠!

구비서류요? 그래? 뭘 가지고!

구비서류요? 글썽 내 발명이 특허출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특허청에 간다면 구비서류가 몇몇가지는 알고 가지가야 하지 않겠나?

구비서류요? 허! 그대들만 헛걸음만 하고 오지!

구비서류요? 특허출원시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구비서류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지 또는 그 승계인은 일정형식의 출원서와 기타의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요? 그러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지!

구비서류요? 이때 도면이 발명의 설명에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첨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요? 그리고 출원인이 당해 출원의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서류외에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구비서류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절차를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구비서류요?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요? 출원서는 특허청 인원실, 각 시도 상공회의소(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작성요령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비서류요? 한편 FD(전자출원)란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FD작성 S/W로 작성된 출원서 부분을 의미하며,

구비서류요? FD작성 S/W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Down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요? 이상이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출원서류였다면 기재한 복수의 발명자를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요? 의장의 경우 기재에다 무상시 복수의 발명자를 출원할 때에는 의장의 일관번호와 동일성을 기재한 복수의 발명자를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요?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정본과 상표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요? 그 밖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단다.

구비서류요?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구비서류요?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 증명서류.

구비서류요? 완전무장

구비서류요? 네! 아! 그런 여러 과정이...

구비서류요? 박사님 그리고 보니 제 발명품이 특허 출원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구비서류요? 너 서류 갖추는게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